

정보격차의 요인과 정보격차 해소를 위한 정책적 원칙

Factors Causing Information Gap and Policy Principles to Bridge the gap

황 혜 선 (Hye-Sun Hwang)*

〈목 차〉

- | | |
|-------------------|------------------------|
| I. 서론 | III. 정보격차해소를 위한 정책의 원칙 |
| II. 정보격차의 요인 | 1. 정보정책의 기본원칙 |
| 1. 경제적 요인 | 2. 정보격차해소를 위한 |
| 2. 정보의 상품화 | 정보의 공공영역확대 |
| 3. 정보수단의 사유화와 개별화 | IV. 결론 |
| 4. 정보의 폭증 | |

초 록

정보화가 진행되어감에 따라 정보격차는 더욱 크게 발생한다. 이 논문에서는 정보격차의 요인으로 경제적 빈부차, 정보의 상품화, 그리고 정보수단의 사유화, 정보폭증을 들고 있다. 이러한 요인에 의해 필연적으로 발생하는 정보부자와 빈자간의 정보격차의 해소를 위해서는 정책적인 노력이 있어야 하며 이러한 정보정책은 민주주의의 원칙에 의거하여 이루어져야 한다.

이 논문에서는 민주주의의 원칙에 따라 공정하고 공평한 정보에의 접근과 정보이용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정보의 공공영역이 확보되어야 하며, 이를 위해서 공공도서관과 공공교육, 공론의 장의 역할 과 기능이 확대되어야 함을 주장한다.

Abstract

Information gap widens as the information society matures. This paper delineates the factors causing information gap as socioeconomic gap, commercialization of information privatization of information means and information explosion. Due to these factors information gap between the information poor and the information rich inevitably widens. To bridge the information gap requires policy efforts that are based on democratic principles. This paper asserts that the public domain of information should be secured to ensure the fair and equal access to information and use of information. It is also argued that the function and role of the public information systems such as public libraries, public schools should be expanded and fortified to ensure the minimum level of fairness and equality in an information society. It is suggested that a public site in a cyber-space might be needed to form public opinions and exchange basic information.

* 동아방송대 전임강사

I. 서 론

정보(information)가 현대사회를 규정하는 가장 중요한 키워드로 등장하고 있다. 기술과 사회생활의 여러 분야에서 진행되는 정보화에 많은 관심에 쏠리고 있다. 정보사회라는 새로운 사회를 규정하는 용어가 일반화되어 있고 정보산업, 정보양식, 정보혁명, 정보폭발 등의 용어들이 전문적인 학술용어로서 뿐만 아니라 대중적 미디어에서도 가장 흔히 쓰는 용어가 되었다. 현대사회를 정보사회로 규정하여 이전의 산업사회와 질적인 면에서 구별짓는 것에 대해서는 학자들 간에 이론이 있지만,¹⁾ 적어도 대중적 미디어와 일반인의 인식에서는 정보사회가 확고하게 자리 매김하고 있다. 정보화가 국가의 정책적 결정에 있어서 정당성을 획득함으로써 정부는 정보산업의 진흥과 정보 인프라의 구축에 많은 예산을 할애하여 정책적 노력을 경주하고 있다.

정보와 정보화에 대한 중요성에 대한 강조는 다소 과장된 면이 있다. 정보사회에 대해서도 지나치게 낙관적으로 전망되고 있다. 정보혁명으로 인하여 인간은 단조로운 노동에서 해방되어 여가를 즐기게 되고, 정보가 필요한 곳이면 어디에나 공급되어 누구나 필요한 정보를 손쉽게 이용하게 되며, 정보통신의 발달로 세계는 한마을처럼 소통하게 되며(global village), 모든 사람은 통신망으로 연결되어(wired society) 긴밀한 유대를 가지고 의견을 나누고 여론을 형성하며 이를 통해 민주주의를 실현시킬 수 있을 것이라는 것이다. 그러나 정보기술의 발달과 사회의 정보화는 많은 문제점을 노정 시키고 있다. 정보의 바다는 무관한 정보와 정치적, 상업적 프로파간다로 메워지고 통신망의 연결은 통신에의 탐닉을 조장시킨다. 사이버 공간에서의 접속의 빈도와 비례하여 현실에서의 인간적 교류는 점점 소원해 진다. 사람들은 공적인 문제에 대해 의견을 교환하고 여론을 형성시키기보다는 다양화된 취미나 분산된 관심을 쫓아서 정보의 바다를 누빈다. 더욱이 정보화가 진행될수록 정보를 활용할 능력과 수단을 가진 사람들과 그렇지 못한 사람들과의 차이는 심화된다. 정보격차는 사회의 정보화가 시장의 원리에 의해 진행되고 전통적으로 정보의 유통에 관여해 왔던 도서관과 같은 공적 기관들이 쇠퇴되면서 더욱 증대된다.

정보사회는 그 명칭이 의미하듯이 정보가 개인에게나 사회전체에게 매우 중요해 지는 사회다. 적절하고 유관한 정보를 얻는 것은 정보사회를 살아가는 개인에게 결정적인 일이다. 정보사회에서 사람들은 정보 통신망상에서 직장을 구하고, 생활정보를 얻고, 문화와 오락을 즐기고, 교육하게 될 것이다. 사람들이 컴퓨터와 정보네트워크에 의존적이 되면 될수록, 이들이 가

1) 정보사회가 산업사회의 연장인가 혹은 단절인가에 대한 논의에 대한 정리는 다음을 참고하라. 강상현, 『뉴 미디어 패러독스, 정보통신혁명과 한국사회』, 한나래, 1996, pp. 83-136.

져다주는 혜택이 크면 클수록, 정보기기와 정보수단이 없는 사람들은 정보사회의 물결에서 더욱 멀리 밀려날 것이다. 정보산업의 진흥과 정보인프라의 구축에 정책적 관심에 집중되고, 상업적 동기의 정보화운동이 대중매체를 통해 활발히 진행되는 동안 정보화 과정에서 소외되는 계층에 대한 관심과 이들에게 정책적 차원에서 정보서비스를 확대하려는 노력이 결여되었던 것이 사실이다. 또한 학계에서도 정보의 확산에 기여하는 공공도서관과 같은 공적 기관의 쇠퇴에 관한 우려가 만연했던 것에 비해 이러한 문제를 민주주의의 기본적인 원칙에 비추어 고찰하는 것이 부족했고, 기본적인 권리로서의 정보접근권과 이용권을 보장하는 문제보다는 정보처리와 관리의 효율성에 관심을 집중해 온 것이 사실이다.

이 글에서는 정보사회에서는 본론에서 정리하고 있는 요인에 의해 정보격차가 필연적으로 심화된다고 보고 그 요인과 함의에 관하여 살펴보고자 한다. 정보격차를 해소하기 위해 정책적 관여가 필수적이며 정책적 원칙은 민주주의의 원칙에 따라 정립되어야 함을 주장하고자 한다. 또한 정보격차해소의 한 방안으로서 근대시민사회에서 정보의 민주적 확산에 기여해 왔던 공공도서관과 같은 공적영역이 정보사회에서 어떻게 그 기능과 역할이 확대되어야 하는지에 대해 논의하고자 한다.

II. 정보격차의 요인

1. 사회 경제적 요인

정보사회에 대한 낙관적인 전망의 하나는 정보의 민주화이다. 인터넷이 각광받게 된 배경에는 정보가 소수의 엘리트에게만 집중되지 않고 일반대중에게 공개된다는 것이었다. 인터넷을 사용하는 사람들의 숫자가 1999년 현재 전세계에서 1억 5000만에 이르렀다고는 하나 정보화가 가장 앞선 미국에서도 인터넷을 고정적으로 활용하는 사람은 미국인구의 25%에 그치고 있다고 한다. 미국에서 인터넷을 쓰고 있는 25% 가량의 사람들을 분석한 결과 그들은 이전부터 엘리트 집단에 속한 사람들이었다고 한다(강미은, 1999). 인터넷의 보급은 이미 사회적, 경제적 엘리트였던 집단의 정보를 한층 증폭시켜 주었다는 것이다.

다양한 개혁 연구에서 새로운 커뮤니케이션 테크놀로지의 수용효과의 두 가지 경향을 밝히고 있다. 하나는 새로운 커뮤니케이션 테크놀로지가 사람들의 정보수준을 전반적으로 향상시킨다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정보부자(information rich)와 정보빈자(information poor)간의 간격을 넓힌다는 것이다 (Katzman, 1974). 즉 새로운 테크놀로지로 인한 정보부자의 정보습득률

4 한국도서관·정보학회지(제 30권 제 4호)

의 증가는 정보빈자의 정보습득률 증가보다 훨씬 빠르다는 것이다. 이상과 같은 효과는 다음의 몇 가지 이유에서 비롯된다. 첫째, 최초의 개혁을 선택하는 사람은 대체로 높은 수준의 교육을 받았거나 보다 높은 지위에 있으며 사회참여도 활발하며 다양한 커뮤니케이션 채널을 가지고 있다 (Rogers, 1983). 따라서 새로운 테크놀로지의 영향은 정보를 얻기 쉬운 사회적 경제적 위치에 있는 사람에게 나타난다. 둘째, 커뮤니케이션 채널을 통해 전달되는 메시지 또는 정보의 내용이 동일하다 하더라도 기존에 이미 가지고 있던 정보수준이 낮은 사람은 높은 사람들에 비해 더 많은 정보를 전달받게 된다. 다시 말해 정보수준이 낮은 사람은 처리해야 할 정보의 양이 상대적으로 많아진다. 처리해야 할 정보의 양이 정보수준이 낮은 사람의 낮은 처리능력을 넘어서면 정보는 무시되거나 왜곡되어 정보전달의 효과는 감소한다. 셋째, 재정적인 면에서도 이미 불공평한 분배가 이루어져 있다. 경제적으로 부유한 사람은 그렇지 못한 사람보다 새로운 테크놀로지를 더 쉽게 획득할 수 있다. 넷째, 이미 습득한 지식이나 기술이 보다 많은 정보를 얻는 것과 직접적으로 관련되어 있다. 이미 가지고 있는 정보수준이 높은 사람은 정보수준이 낮은 사람보다 추가적 정보를 더 찾고자하는 경향을 보인다.

정보사회에서의 정보격차는 이러한 일반적인 요인 이외에도 컴퓨터에 기반을 둔 정보기기의 이용과 접근과 관련된 사회 경제적 요인에 의해 발생한다. 정보사회에서의 정보는 전자적인 형태로 변형되어 조직되고, 저장되며 유통된다. 정보는 컴퓨터로 처리되며 컴퓨터의 기억장치에 저장되고 정보네트워크를 통해 유통된다. 디지털 형태로 정보를 수집하고 처리하고 가공하고 그리고 유통하기 위해서 투자해야 하는 정보제공업자의 비용은 엄청나다. 정보제공업자가 투자비용을 환수하기 위해서는 정보를 유료화 하여 제공하여야 할 것이다. 개인이 정보에 접근하기 위해서는 적어도 컴퓨터 단말기와 모뎀을 구입하여야 하고 정기적으로 통신비를 지불하여야 한다. 또한 정보제공업자에게서 유료로 정보를 구입해야 한다. 이러한 방식은 많은 사람들에게 만만찮은 비용지불을 요한다. 이러한 비용을 지불할 경제적인 능력이 없는 사람들은 정보사회의 혜택에서 점점 멀어지게 된다.

정보사회의 혜택은 정보를 얻기 위해 제비용을 지불할 수 능력이 있는 사람, 정보를 필요로 하고 정보를 활용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사람, 즉 부유하고 교육을 받은 사람들에게 가장 먼저 돌아간다. 정보사회가 성숙되어 가면서 초기의 수혜자와 비수혜자 사이의 격차는 심화된다. 초기의 부유한 수혜자는 정보기기와 정보활용교육에 비용을 지불할 수 있었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 보다 정보활용능력에 있어서 월등한 지위에 있게 된다. 정보의 양적인 증가로 말미암아 더욱 고도의 정보활용능력과 더욱 큰 용량과 기능을 가진 정보기기가 요구되는데 부유한 초기의 수혜자는 정보능력과 용량을 업그레이드시키는 것이 비수혜자보다 훨씬 용이하다. 정보화의 초기에 발생한 수혜자와 비수혜자간의 정보격차는 정보기기의 발달과 정보의 량, 정보이용의 복잡성이 증대됨에 따라 누적적으로 발생한다.

2. 정보의 상품화

정보사회에서는 정보기기, 정보접근을 위한 수단과 같은 하드웨어뿐 아니라 정보자체에 대해서도 점점 더 많은 비용을 지불해야 하므로 가난한 사람들의 정보이용을 더욱 제한하게 된다. 정보에 가격을 매기고 정보에 비용을 지불하는 것은 정보사회의 새로운 현상이다. 정보와 지식은 전통적으로 사람들에게 널리 알리는 것으로 인식되어 왔다. 또한 정보는 사회의 공적 자산 즉 공공재라는 개념이 강했다. 근대시민사회는 교육을 통해서 정보와 지식의 보급에 힘써 왔다. 정보의 수집과 배포를 전문적으로 담당하는 도서관을 설립해 모든 시민에게 무료로 정보를 제공하는 시스템을 구축해 왔다. 정보사회에서는 정보의 공공재적인 개념이 약화되고 정보의 사유재적인 측면이 강화되고 있다.

정보에는 사유재적인 측면과 공공재적인 측면이 동시에 존재하는데, 정보의 생산이 전체사회가 공유하는 정보와 지식에 기초해 이루어진다는 측면에서 공공재로서의 성격을 가지나, 정보의 생산이 개인의 지적 노력에 의해 이루어지므로 개인의 노력에서 얻어지는 산물은 노력한 사람에게 속한다는 의미에서 사유재적 속성을 지니게 된다. 정보에 대한 사유재적 권리는 저작권이라는 법적 권리의 확대와 함께 되어 왔다. 저작권은 지적, 창조적 노력의 결과물에 재산권적 권리를 부여함으로써 다른 사람들의 정보이용을 제한하게 된다. 저작권은 저작재산권을 양도하는 과정에서 이에 대한 상품적 가치를 획득함으로써 정보의 상품화에 대한 법률적 근거를 제공해 준다.

정보의 수집, 처리, 가공의 과정이 디지털화됨에 따라, 저작권적 권리는 복잡해지고 중첩된다. 어떤 정보가 출판되어 배포되고, 이후 데이터베이스에 저장되고 이를 통해 배포된다고 할 때 저작권은 이중, 삼중으로 발생한다. 해당 정보의 원생산자가 가지는 저작권, 그 정보를 수집하여 배포하는 데이터베이스 업자가 가지는 저작권 등, 특정한 정보에 대한 직접적인 혹은 간접적인 저작권에 대해 정보 이용자는 중첩된 저작권료를 지불하게 된다.

정부기관과 비영리 단체에 의해 이루어진 연구와 조사의 결과는 공공자료로서 공공의 영역에 속하게 되며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저작권이 인정되지 않는다. 그러나 공공자료도 정보처리와 가공을 거쳐 상품화되고 있다. 도서관에서 수 십 년 동안 수집하고 정리한 서지정보는 서지 데이터베이스업체에 의해 처리되고 가공되어 상품화된다. 정부기관인 통계청에서 발행한 인구 센서스 자료는 정보사업자에 의해 범주화되어 백화점체인이나 보험회사, 신용카드 회사에 팔려진다. 법원의 판례나 판결문, 주식가격, 통계자료, 정부의 법과 규제 등에 관한 공공 정보를 수집하고, 정리하고, 처리하고, 포장하여 배포하는 정보사업자가 등장하여 급격하게 성장하고 있다. 정보처리와 가공은 정보사회에서 가장 부가가치가 높은 사업이 되고 있다. 전통적으로 도서관과 같은 공공적인 기관이 담당하던 정보수집과 배포는 상업화된 정보사업자의 영역이 되어가고 있다.

6 한국도서관·정보학회지 (제 30권 제 4호)

상업적인 정보사업가는 모든 사람에게 평등하고 자유로운 정보접근을 보장하기보다는 정보 상품을 통한 이익의 극대화를 도모한다.²⁾ 공공정보의 상업화는 이중적으로 공공의 이익을 배반한다. 즉 공공정보의 수집은 국민들의 세금에 의해 이루어진다. 공공정보에 대해서는 대체로 저작권이 부여되지 않으므로 상업적인 정보사업자는 헐값에 정보를 구하여 이를 가공, 처리하여 배포시킴으로써 상업적인 이익을 도모한다. 데이터베이스 사업자는 데이터베이스에 대한 저작권을 획득하여 저작권료를 받을 수 있게 된다. 공중은 자신이 낸 세금에 기반해서 수집되고 창조된 공공정보를 이용하기 위해 다시 비용을 지불하게 된다.

정보기술의 발달과 매체의 다양화로 인하여 공공적인 정보의 영역은 점점 축소되고 있다. 이전의 공공도서관에서의 정보이용은 거의 무료로 이루어졌다. 도서관에서 도서를 중심으로 정보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는 도서관은 도서를 구입하는 것으로 족했고 공중은 도서의 이용이나 도서관의 참고봉사에 대해서 요금을 지불하지 않았다. 도서관에서의 정보이용은 저작권법에서 공정사용(fair use)의 개념에 의해서 공중에게 자유로운 정보이용을 보장하였다. 그러나 정보의 배포수단이 인쇄매체에서 비인쇄매체로 대체되고 필요한 정보를 원거리에 위치한 데이터베이스에서 제공받는 경우가 많아지면서 도서관에서 무료로 정보를 제공하는 것이 어렵게 된다. 도서관은 인쇄매체 뿐만 아니라 비인쇄매체를 구입해야 하고 상업적인 데이터베이스에 연결해야 한다. 한정된 자원과 예산으로 도서관에서 제공할 수 있는 정보의 수준은 종합적인 수준에서 점점 멀어 지게 된다. 공중이 도서관에서 무료로 이용할 수 있는 정보는 점차 줄어들게 된다. 도서관에서 구할 수 없는 정보를 위해서 다른 상업적인 정보제공업자에게 비용을 지불해야 한다. 도서관에서 제공하는 정보서비스에 있어서도 온라인 요금, 저작권료 부담 등을 수수료를 통해 공중에게 전가하지 않을 수 없게 된다. 수수료나 대금을 받지 않고 정보를 제공하는 일이 공공도서관과 같은 공적인 정보제공 기관에서조차 어렵게 되었다.

3. 정보수단의 사유화와 개별화

정보격차는 또한 정보접근 수단의 개인화에서 비롯된다. 정보부자와 정보빈자 사이의 눈에 띄는 차이는 정보에 접근할 수 있는 수단의 유무에 있다. 정보접근 수단이 다양화함에 따라 정보수단을 구입할 수 있는 부유한 사람들은 정보를 얻는 것이 그렇지 않은 사람들 보다 유

2) 예를 들어 데이터베이스 사업자인 다이얼로그(Dialog)사에서 정보를 수집하는 것과 도서관에서 정보를 수집하는 것은 동시에 있어서 매우 편이하다. 상업적인 정보사업자에게는 이익이 정보수집에 있어서 최우선인 반면 도서관에서는 주어진 예산의 범위 내에서 가능한 많은 사회적 지식을 축적하려는 장기적 목표에 따라 정보를 수집하게 된다. 다이얼로그사의 사장은 “우리는 돈을 벌어들이지 못하는 데이터베이스나 혹은 개발 비용을 회수할 수 없는 데이터베이스는 사들일 수 없다”고 말하고 있다. 현재 어느 분야의 데이터베이스가 개발비용의 회수에 어려움을 주고 있는가 묻자 그는 “인문사회”라고 대답하였다(윌러, 1995).

리하다. 이 수단은 컴퓨터를 비롯한 하드웨어뿐만 아니라 멤버쉽과 같은 사회적 수단도 포함된다. 기업이나 단체에 속하는 개인은 업무수행을 위해 필요한 정보를 검색·이용할 수 있는 많은 수단을 가지게 된다. 대학이나 연구소등에 소속된 사람들도 도서관을 비롯한 정보시스템을 통해 필요한 정보를 이용할 수 있다. 그러나 어떤 기관이나 단체에도 소속되지 않은 개인은 정보를 얻기 위해 개별적으로 장비와 멤버쉽을 구입하지 않으면 안 된다. 정보접근 수단이 개별화됨으로써 정보접근에서 원천적으로 배제되는 사람들이 생긴다.

정보는 본질적으로 비배제성과 비경합성의 속성을 지니고 있어 공공재의 성격을 띤다. 즉 정보는 그 내용이 다른 사람들에게 알려지는 것을 막기 힘든 특성(비배제성), 그리고 누군가가 정보를 이용한다 할 지라도 그것이 소진되어 다른 사람이 이용할 수 없게 되지 않는 특성(비경합성)을 가진다(홍기선 외, 1998, 95). 그러나 공공재로서의 정보는 매체의 발달로 인한 정보의 저장·배포 수단의 개인화로 말미암아 수단과 함께 사유재화하고 있다.

비배제성과 비경합성의 정도는 매체마다 달라지는데 구전으로 전해질 경우 이를 저해하는 요소는 주로 시공간적인 요인인데 비해, 신문과 도서는 매체의 구입능력, 문자해독의 유무가 추가되며, 컴퓨터에 기반을 둔 정보의 경우 더욱 많은 요인들이 개입되어 비배제성과 비경합성을 저해하게 된다. 즉 컴퓨터와 같은 기기의 보유 유무, 정보망 가입 유무, 컴퓨터 활용능력, 정보검색 능력 등이 정보의 이용을 제한한다.

이전의 사회에서는 정보수단은 비교적 단순한 형태를 취했다. 언어는 정보의 수단으로서 개별화되기 힘들며, 도서와 같은 인쇄매체는 비배제성의 정도가 비교적 높았다. 또한 도서관에서의 도서대출을 통해 정보는 공공재로서 유포되었다. 그러나 컴퓨터에 기초한 정보수단은 여러 단계의 사유화를 거침으로써 정보의 공공재로서의 속성이 약화된다. 즉 공중은 공공재인 정보에 접근하기 위하여 사유재인 여러 정보 수단에 유료로 접근해야 한다.

정보의 공공재적인 성격에도 불구하고 정보의 저장과 배포가 정보의 수단에 의해 중점적으로 이루어지는 정보사회에서는 정보수단에 접근할 수 있는 능력에 따라 정보격차가 발생하지 않을 수 없게 된다. 공공재로서 공적인 영역에 존재하던 정보는 이제 개인이나 단체가 소유한 컴퓨터의 메모리 안에 존재하며, 개인적 코드를 통해서 접근될 수 있는 사적인 영역에서 존재하는 것으로 변한다.

4. 정보의 폭증

정보사회에서의 정보는 폭발적으로 증가한다. 정보의 생산이 기하급수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어 개인이 잠재적으로 필요로 하는 정보의 양은 엄청난 규모로 증가한다. 더욱이 잠재적으로 유용한 정보가 거대한 정보의 데이터베이스에 산재해 있어 어떤 문제의 해결을 위해 필요한

정보는 개인이 접근할 수 있는 통상적인 범위 밖에 존재할 가능성이 커지게 되며 정보의 양은 개인의 처리능력을 초과하게 된다. 이때 정보의 수집, 정보의 해석 및 정리, 필요한 정보의 요약 등과 같은 정보 서비스를 받을 경제적인 능력이 있는 사람과 그렇지 못한 사람과의 사이에는 정보이용에 있어서 커다란 차이를 보이게 된다.

컴퓨터에 기초한 정보기술은 정보폭증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발달되어 왔다. 정보기술의 발달은 정보매체의 발달을 촉진시켰으며 이는 다시 엄청난 정보의 보존이 가능하게 하였다. 문자시대 이전의 정보는 개인의 기억력에 의존한 개인화된 지식의 형태로 존재해 왔다. 그러나 인쇄매체의 발달과 함께 정보는 종이라는 장소에 외적으로 존재할 수 있게 되어 개인의 기억을 확장시켰다. 최근 전자정보 매체의 발달로 인하여 개인의 기억 밖에 존재하는 정보의 양은 거의 무한대에 이르게 되었다. 또한 통신기술의 발달로 인해 개인이 필요로 하는 정보는 어디에 있든, 어떤 형태로 존재하든 이론적으로는 모두 접근 가능하게 되었다. 더욱이 정보의 생산은 이러한 정보매체의 발달에 힘입어 매우 급속도로 이루어지게 되어 개인이 가진 정보는 언제나 낡고 불충분하게 된다. 정보사회에서는 지식 그 자체(know-what)나 문제해결 방법에 관한 지식(know-how)보다 정보의 소재를 파악하는 것(know-where)이 더욱 중요하다는 견해가 제시되고 있다. 즉 개인의 기억체계에 내면화한 정보(지식; knowledge)보다는 무한한 정보의 바다에서 필요한 정보의 소재를 파악하여 찾는 능력이 더욱 중요하다는 것이다.

정보의 폭증과 정보저장매체의 발달은 개인의 지력에 의한 정보습득능력과 기억력에 의한 보존능력을 점차 무의미하게 한다. 개인은 정보습득과 이용에 있어서 기억 외적인 수단에 의존하게 된다. 이러한 외적인 정보수단의 획득과 이용에는 필연적으로 비용이 수반된다. 따라서 필요한 정보의 습득을 위해서는 정보저장, 전달수단에 대한 비용을 지불해야 하는 정도가 점점 증한다. 정보수단은 정보의 양이 폭증함에 따라, 정보의 신속성이 더욱 요구됨에 따라 더욱 복잡해지고 고성능의 기능을 요구하게 되고 이는 비용의 증대로 이어 지게 된다.

정보의 폭증은 정보수단에의 의존을 증대시킴과 동시에 수집하고 처리해야 할 정보의 양을 엄청나게 증대시킴으로써 개인의 정보처리 능력의 한계를 넘게 하고 있다. 따라서 개인이 문제해결을 위해서 의미 있는 정보를 구하고 이용하는 것이 점점 힘들어진다. 유용한 정보를 구하기 위해서는 정보수집과 정보처리, 핵심정보의 발췌 등의 정보서비스에 대한 비용을 지불해야 한다. 이러한 정보서비스에 대한 비용을 지불할 능력이 있는 사람은 정보의 혜택을 십분 누리게 되는 반면 그렇지 못한 사람들은 정보사회의 혜택에서 멀어 질 수밖에 없다.

III. 정보격차해소를 위한 정책의 원칙

정보사회에서는 위에서 언급한 여러 가지 요인에 의해 정보부자와 정보빈자로의 구분이 점차 명확해지며 그 차이 또한 정보화가 진행될수록 심화된다. 그러나 정보사회는 직업, 교육, 정치, 문화, 건강 등에 관한 정보가 일상생활에서 무엇보다 필요한 사회이기도 하다. 또한 정보에 접근하기 위해 정보기기와 수단에 점점 의존하게 되는 사회이다. 그러나 컴퓨터를 가지고 있지 않다면, 컴퓨터를 사용할 줄 모른다면, 통신료를 지불할 수 없다면, 정보를 얻는 새로운 방식을 배울 기회와 경제적 능력이 없다면, 정보사회에서 정보에 접근조차 할 수 없게 될 것이다. 최근 한 통계에 의하면 정보사회의 선두에 있는 미국에서도 고작 전국민의 10%만이 데이터베이스의 네트워크에 접근할 수 있다고 한다. 인터넷이 많이 확산되었다고는 하나 인터넷을 일상적으로 사용하는 사람은 미국의 경우에도 인구의 25%정도이고 인터넷이 정보의 획득을 위해서 보다는 네티즌간의 커뮤니케이션을 위해 사용되고 있다. 가난하고 교육받지 못한 계층, 노인층과 변방의 거주자들은 급변하는 기술과 정보의 높은 비용을 감당하지 못하여 점점 정보화에 뒤처지게 된다.

정부는 정보사회의 인프라 구축을 위해 엄청난 예산을 투입하고 있다. 전국을 광케이블로 연결하는 초고속통신망의 구축을 위해 2015년까지 45조 2천억의 예산을 투입할 계획이다. 이는 정보가 국제경쟁력을 결정짓는 가장 중요한 요소라는 인식에서 출발하고 있다. 그러나 정보화 정책이 양적인 증대에 치우쳐 질적인 성장과 정보격차의 해소에 소홀한 경향이 있다. 진정한 정보화란 궁극적으로 모든 국민이 언제 어디서나 원하는 정보를 구해서 이용할 수 있으며, 모든 국민이 정보사회가 제공하는 혜택을 골고루 나누어 가지는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정보정책의 기본원칙이 재정립되어야 하며 이 원칙은 공정하고 공평한 기회의 제공이라는 민주주의의 원칙에 입각해야 한다.

1. 정보정책의 기본원칙

정보정책의 기본원칙은 현재 민주사회를 이루는 기본원칙에 근거해야 한다. 즉 민주주의적 기본원칙이 어떻게 새로운 정보 통신 기술과 수단의 이용에 적용될 수 있는가가 논의의 근간이 된다.³⁾

3) 정책적 원칙으로 제시된 항목들은 다음의 책을 참고하였다. Firestone, C.M. & Schement, J.R. (Ed.). *Toward an Information Bill of Rights & Responsibility*, Washington, D.C. : The Aspen Institute. 1995.

A. 접근 (Access)

정보사회에서는 정보의 흐름이 자유로워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정보 통신 인프라에 접근하는 것이 누구에게나 평등하게 이루어져야 한다. 이는 최근 엄청난 예산이 투입돼 건설되고 있는 초고속 통신망에 접근할 수 있는 실제적인 접근을 제공함을 의미한다. 모든 사회 구성원에게 기회의 균등을 보장한다는 민주주의의 원칙에 어긋나지 않도록 정보인프라의 구축이 고안되어 보편적인 접근(universal access)이 보장되어야 한다.

보편적 접근을 위해서는;

- 1) 정보인프라를 통해서 원하는 모든 개인과 기관들이 서로 서로, 그리고 데이터베이스와 같은 정보원과 연결되어야 한다. (Connectivity)
- 2) 기본적인 정보서비스에 대한 요금이 지불 가능한 범위에 있어야 한다. 즉 정보접근의 비용이 충분히 저렴하여 대부분의 국민이 이용할 수 있어야 한다. (affordability)
- 3) 구성원들이 정보를 이용할 수 있는 능력(information literacy)을 가져야 한다.

B. 공정과 평등(Nondiscrimination)

정보능력, 신분, 경제적 능력에 관계없이 원하는 사람은 누구나 정보사회의 정치적, 사회적 대화와 정보의 교환에 완전하게 참여 할 수 있어야 한다. 즉 사회적 신분의 차이, 정보능력 및 경제적 능력의 결핍이 정보의 이용과 정보의 교환을 제한하지 않아야 한다. 민주사회의 기본원칙인 평등과 공정함은 정보사회에서도 적용되어야 할 것이다. 정보사회에서의 정보능력은 시민민주주의 사회에서의 문자해독 능력에 비견 될 수 있을 것이다. 정보능력의 습득을 위한 공공적인 교육 프로그램과 교육시설이 충분히 제공되어야 하며 누구에게나 개방되어야 한다. 또한 정보기기와 통신비용, 정보서비스의 비용이 대부분의 사람들이 지불할 수 있는 범위 안에 있어야 한다. 비용을 지불할 수 없는 사람들을 위해서 공공기관이나 공적인 시설 내에서 정보서비스를 실시하여야 할 것이다.

C. 참여(Participation)

효율적인 정보 인프라의 구축을 위해서는 의사결정이 민주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이는 정보정책과 정보 인프라 구축이 공개적인 토론을 통한 충분한 의견수렴의 과정을 거쳐서 이루어져야 함을 의미한다. 정부와 국민 사이의 원활한 의사소통이 이루어져야 하며 이를 위한 다양한 채널이 열려 있어야 한다. 특히 공립학교, 공공방송, 공공도서관과 같은 공공기관 및 단체를 강화해 정보정책과 정보인프라 구축이 상업적인 이익과 일부 계층에게만 유리하도록 편향되게 이루어지지 않도록 해야 할 것이다. 또한 정보정책과 정보 인프라 구축에 관한 교육과

홍보를 통해 다수의 합의와 지지를 이끌어 내는 것이 효율적인 정보정책과 인프라의 구축에 필수적이다.

D. 다양성(Diversity)

풍부하고 다양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정부의 정보정책은 다음과 같은 점에서 다양성을 확보하도록 해야 한다.

- 1) 정보접근을 제공해 줄 수 있는 매체의 다양성
- 2) 모든 국민이 공적 대화에 참여할 수 있는 수단의 다양성
- 3) 정치, 경제, 사회문제에 관한 다양한 관점의 정보
- 4) 정보사회에서의 사회참여에 필요한 기술과 교육을 획득할 수 있는 기회의 다양함
- 5) 다양한 의견표현을 장려하는 자유로운 정보환경

E. 정보원(Information Resources)

정보가 중요한 경제적 가치를 지니게 되는 정보사회에서는 정보에의 접근과 이용이 경제적 요인에 의해 지배된다. 경제적 능력을 가진 자와 가지지 못한 자의 격차는 정보의 습득과 이용에서의 격차로 이어지므로 경제적 빈곤은 곧 정보의 빈곤으로 이어지게 되며 빈곤의 사이클은 정보사회에서도 계속된다. 경제적 격차가 정보격차로 이어지는 것을 막기 위해 정보에의 접근을 보장해 줄 수 있도록 공공적 정보의 영역을 확보해 주는 것이 민주정부의 책임일 것이다. 즉;

- 1) 정보네트워크에 공공정보의 영역을 확보하는 것,
- 2) 공공도서관이 정보와 정보원예의 접근을 무료로, 또는 무료로 가깝게 제공할 수 있도록 공공도서관을 지원하는 일,
- 3) 민주시민으로서, 소비자로서 필요한 정보가 모든 사람에게 접근 가능한 형태로 제공되도록 하는 것이 정부의 정보정책의 과제로 포함되어야 한다.

정보사회에서는 정보상품화가 가속화될 것이다. 사적 정보제공업자는 정보소비자에게 엄청난 양의 다양한 정보를 제공하게 될 것이다. 이들은 사업과 재무에 관한 데이터, 게임, 영화, 음악 등의 오락적인 정보, 흡수평과 관계되는 여러 가지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부가가치를 창출할 것이다. 그러나 정보사회의 시장경제 하에서 공공적인 문제와 관심사에 관한 시민의 여론을 수렴하기 위한 장이 충분히 확보될 수 있을 지는 의문이다. 정보사회의 정보정책은 민주사회의 건전성을 유지하기 위해 새로운 형태의 시민 토론의 장을

마련하는 것을 포함해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해서,

12 한국도서관·정보학회지(제30권 제4호)

- 1) 정부정책과 공공서비스에 관한 정보를 모든 국민에게 전달하는 시스템을 확보해야 한다.
- 2) 정부관리나 선출된 공직에 있는 인사들로부터 정보를 받고, 이에 반응할 수 있는 상호적인 커뮤니케이션 시스템이 마련되어야 한다.
- 3) 시민과 시민, 시민과 정부관리간의 연계성이 충분히 확보되어 서로간의 의견교환이나 의사소통이 자유롭게 이루어져야 한다.

2. 정보격차 해소를 위한 정보의 공공영역 확대

정보기술과 통신이 발달함에 따라 개인이 필요로 하는 정보를 원하는 때에 원하는 방식으로 획득하고 이를 이용하는 것이 가능해졌다. 즉 정보의 이용에 있어서 시간적, 공간적 제약이 점차 극복되고 있다. 인터넷을 통하여 세계의 유명도서관에 접속하여 그 도서관의 장서를 확인할 수 있으며 필요한 정보를 검색하여 이용할 수 있다. 전문가 사이트에 접속하여 문제해결을 위한 자문을 받을 수 있게 되었으며 필요한 정보를 구할 수 있게 되었다. 정치적, 사회적 이슈에 대해 의견을 전세계의 네티즌에게 보내고 받을 수 있다. 필요한 정보는 손가락 끝에서(information at your finger tip; 게이츠 1996) 어느 곳에서는, 어느 때건 건져 올려질 수 있게 되었다.

그러나 정보수단의 결여로 말미암아 정보사회가 줄 수 있는 이러한 혜택에서 소외되는 사람들이 존재한다. 물론 산업사회에서도 소외의 여러 요인들이 존재했으며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 격차가 존재하였다. 정보사회에서는 이러한 격차가 정보격차로 이어지게 되며 정보격차는 이미 존재하는 사회적 경제적 격차로 심화된다. 정보사회에서는 정보가 일상생활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함에 따라 정보네트워크에 연결되지 않은 사람은 개인생활에 중요할 지도 모르는 많은 일에서 소외된다. 예를 들어 구인광고가 인터넷을 통해서만 이루어진다면 인터넷에 접속되지 않은 사람들은 구직의 기회를 갖지 못할 것이다. 또한 중요한 사회적, 정치적 이슈에 대해 인터넷을 통해 여론조사나 의견표출이나 항의가 이루어지는 것이 더욱 빈번해 진다면 인터넷에 접속되지 않은 사람들의 의견표출의 통로는 제한될 것이다. 따라서 사회적, 정치적 이슈에 대한 반응과 사회적 선택은 인터넷에 접속된 사람들에게 편향되게 이루어질 것이다. 뿐만 아니라 정보사회가 심화됨에 따라 인간 활동의 영역은 컴퓨터와 통신기술이 제공하는 가상공간으로 까지 확대해 나갈 것이다. 많은 직업과 기회가 가상공간에서 창조되고 가상공간에서의 경제활동의 비중도 점점 커질 것이다. 정보격차의 문제는 정보의 습득과 정보원래의 접근이라는 차원을 넘어 정보빈자들이 경제적 생산활동에 참가할 수 있는 기회가 줄어들어 심각한 문제일 수 있다.

정보사회에 관한 낙관적인 견해를 피력하는 사람들은 머지않아 정보기와 통신의 가격이

충분히 싸져서 각 가정에서 TV나 전화, 그리고 컴퓨터를 이용하여 원하는 정보원에 접속하여싼 비용으로 정보를 이용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한다. 그러나 모든 사람들이 비용에 구애받지 않고 정보를 이용할 수 있게 되기 위해서는 기술적 문제를 비롯한 제도적 문제들이 선결되어야 할 것이다. 그 중에서도 정보격차의 해소에 대한 논의가 있어야 할 것이다. 정보격차의 해소를 위해서는 공적 정보 시스템이 보편적 서비스라는 규범적 이념에 기초해서 재정립되어야 할 것이다. 다음은 정보사회에서 정보격차를 줄이고 모든 사회 구성원에게 기본적인 정보이용을 보장해 줄 공적 정보 시스템의 기능과 역할의 확대에 관한 논의이다.

A. 공공도서관의 확충과 봉사영역의 확대

공공도서관은 공공을 위한 정보봉사를 담당하는 기관이다. 정보사회에서도 공공도서관이 지역사회의 모든 사람들을 위한 정보봉사의 역할을 담당할 수 있을 것이다. 정보사회에서는 정보기술과 통신의 발달로 많은 사람들이 공공도서관과 같은 정보봉사 기관을 거치지 않고 정보제공자와 직접 연결하여 정보를 이용하는 경우가 더욱 많아질 것이다. 동시에 정보수단이 없는, 정보에의 접근과 정보이용을 위해서 비용을 지불할 능력이 없는 사람들이 여전히 적지 않을 것이다. 공공도서관은 이외의 다른 정보수단이 없는 사람들을 위해서 무료로, 혹은 무료로 가깝게 정보서비스를 제공하는 기능을 지속할 것이다. 공공도서관은 공립학교, 공공방송과 더불어 서비스에 대한 비용을 지불할 능력에 상관없이 누구나 평등하게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민주주의 제도의 가장 기본적인 장치로서의 역할을 해왔다. 정보가 일상생활을 영위해 나가는 데 있어서, 사회참여에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는 만큼 정보와 정보접근에 관한 권리도 기본적인 권리로 보장되어야 할 것이며 이러한 기본권을 보장하는 공적인 장치로서 정보사회에서도 공공도서관이 존속될 필요가 있다. 즉 정보제공과 정보원への 접근이 보편적인 서비스(universal service)로 국민에게 제공되어야 하며 이는 공공도서관에 통해서 가장 효과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다.

그러나 정보기술과 매체의 변화에 따라 공공도서관의 서비스의 내용과 주안점이 달라져야 할 것이다. 전통적인 공공도서관의 주된 업무는 장서의 구축, 자료의 대여를 통한 봉사, 열람실 제공, 참고봉사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또한 지금까지의 공공도서관의 정보서비스는 주로 도서와 잡지와 같은 인쇄매체를 통하여 이루어졌다. 그러나 공공도서관의 서비스는 정보사회에서 확대되지 않으면 안 된다. 왜냐하면 전자매체가 정보의 저장과 전달에 있어서 주된 매체로 자리잡아 가기 때문이다.

정보사회 이전에는 정보를 수록하여 전달하는 주된 매체는 인쇄 매체였다. 도서, 잡지, 신문과 같은 인쇄매체가 정보를 기록하고 저장하는 역할을 담당했으나 디지털 매체의 발달로 엄청난 양과 다양한 형태의 정보가 디지털 매체에 저장될 수 있음에 따라 인쇄매체의 비중이

점차 낮아지고 있다. 또한 정보의 폭증으로 인하여 제한된 인쇄매체로 이루어진 도서관의 장서로는 다양한 이용자에게 시의 적절하면서도 유관한 정보를 제공해 주는 것을 불가능하게 하고 있다. 이용자가 자신에게 유용한 정보를 한 도서관의 장서를 통해 찾는 것이 점점 어려워지고 있는 것이다. 따라서 공공도서관의 정보서비스도 인쇄매체를 중심으로 한 정보봉사를 확대하여 전자매체를 통한 봉사로 그 범위를 확대해 나가야만 의미 있는 정보서비스가 이루어질 수 있을 것이다.

공공도서관이 정보수단이 결여된 채 정보사회를 살아가야 하는 사람들에게 문제해결을 위한 의미 있는 정보서비스를 제공해 주기 위해서는 다양한 정보원에 연결점을 제공해 줄 수 있다. 즉 공공도서관은;

- 1) 타도서관과 정보서비스 기관과 자료와 정보를 교환하고 (상호대차) 특히 타도서관과 정보서비스 기관으로부터 자료와 정보를 중개하는 매개자로서의 역할을 해야 한다.
- 2) 공공도서관은 지역의 주민에게 자관 뿐만 아니라 타도서관 및 정보제공기관에 접근할 수 있도록 멤버십(membership)을 부여해야 한다.
- 3) 공공도서관은 지역의 주민이 정보네트워크에 접속할 수 있도록 도서관내 컴퓨터와 온라인망을 제공해야 한다.
- 4) 공공도서관은 상업적인 온라인 정보서비스에 대한 비용을 부담해야 한다.
- 5) 공공도서관은 수많은 정보원으로부터 자료와 정보를 선택하고 처리, 가공하여 지역주민에게 제공하는 서버로서의 역할을 해야 한다.

이러한 공공도서관의 서비스는 정보수단을 소유하지 않은 사람들이 정보사회의 혜택에서 소외되는 것을 막는 최소한의 장치로서 역할을 할 것이다.

많은 사람들은 전자매체의 발달로 도서관이 궁극적으로 전자도서관의 형태로 변화 될 것으로 전망한다. 모든 정보는 디지털 형태로 변환되고 이들은 거대한 데이터베이스에 수록되어 통신네트워크를 통해 개인이 원하는 정보를 검색하여 이용할 수 있게 되면 전통적인 도서관의 모습은 사라질 것이라고 예측한다. 도서관의 건물과 장서가 없는 데이터베이스와 통신망이 지금의 도서관을 대신할 것이라는 극단적인 견해도 제시되고 있다. 그러나 도서관이 지금과 같은 형태를 유지하든 그렇지 않든 간에 공공도서관은 정보사회에서도 민주적 제도장치로 남아서 모든 사람들을 위해 공정한 정보서비스를 제공한다는 전통적인 공공도서관의 임무를 지속하는 것이 필요하다.

전자도서관이 보편적인 형태의 도서관으로 자리잡아 많은 사람들이 이를 통해 정보욕구를 해결하게 된다 할 지라도, 공공도서관은 누구에게나, 특히 정보수단이 결여된 사람들에게 접근과 이용을 허용함으로써 정보접근과 이용에 있어서 공정성과 평등을 보장하는 기관으로서 존속되어야 할 것이다. 미래의 사람들은 아마도 지금의 정보욕구와는 다른 욕구를 가지고 공

공공도서관을 이용할 것이다. 예를 들면, 공공도서관의 이용자는 정보네트워크에 연결되어 있는 도서관의 컴퓨터로 구인광고를 찾거나, 도서관의 제작과 멤버십을 이용하여 상용데이터베이스에서 정보를 찾아 다운로드 받게 될 지 모른다. 또는 전문데이터베이스(full-text database)에서 새로운 연구보고서를 검색하여 도서관의 프린터로 출력할 지 모른다. 정보가 폭증함에 따라, 정보가 수많은 정보원에 산재해 있음에 따라 유관하고 유용한 정보를 찾는 것이 매우 어려워질 것이다. 공공도서관은 이용자들의 욕구를 파악하여 무수한 정보원으로부터 이용자에게 가장 적합한 정보를 검색해 주는 서비스도 제공해 주어야 한다.

정보기술과 통신망의 발달로 전자매체가 정보저장과 정보전달의 주된 매체로 자리잡고 인쇄매체의 비중이 점차 줄어든다면 공공도서관의 모습은 아마도 수많은 책 대신 데이터베이스와 연결된 컴퓨터의 단말기들로 이루어지거나, 극단적으로는 물리적, 공간적 형태를 취하지 않고 가상공간에서 정보서비스가 이루어질 수도 있을 것이다. 공공도서관이 디지털 정보의 중계소로서 또는 서버로서 각 가정의 이용자에게 쌍방향의 정보봉사를 할 수도 있을 것이다. 공공도서관의 외형적 형태가 어떻든 간에, 서비스의 형태가 어떻든 간에 공공도서관은 정보의 접근과 이용에 있어서 공정성과 평등을 확보해 줄 수 있는 제도적 장치로서 그 역할을 계속할 수 있을 것이다.

B. 공공교육

공공도서관과 마찬가지로 공공교육기관도 평등하고, 공정한 교육서비스를 사회적 지위나 경제적 능력에 관계없이 누구에게나 제공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정보사회에서의 공공교육도 보편적 교육이라는 목표를 지속적으로 추구해 나가야 할 것이다. 그러나 정보사회에서는 교육의 기회에 있어서 편차가 발생할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즉 교육의 내용으로서의 정보는 엄청나게 늘어나고 이를 정리하고 처리하는 정보기기와 통신망이 가져다 줄 수 있는 교육적인 혜택과 효과가 커질수록 정보수단의 유무에 따라 교육에 있어서 편차가 나타날 것이다. 이러한 편차는 개인간뿐만 아니라 학교간, 지역간에도 현저하게 나타날 것이다. 따라서 정보사회에서의 교육기회의 균등은 정보기기와 기술, 통신망에의 접근이 모든 학생들에게 보장되는 것을 포함해야 할 것이다. 정부는 컴퓨터를 비롯한 정보기기와 통신시설에 관한 설비기준을 정하고 이에 따라 모든 학교에 기기와 시설을 지원하여 정보사회의 교육을 행하는 데 있어서 도시와 농촌, 부유한 지역과 빈민촌, 중앙과 지방의 학교사이에 있어서 정보환경의 차이를 최소화하여야 할 것이다.

공립교육기관은 정보능력을 배양할 수 있는 가장 기초적인 교육기관으로서 역할을 해야 한다. 정보능력은 정보사회를 살아가는 데 가장 기초적인 능력임을 인식하여 정보능력의 배양을 공립학교의 교육목표와 교육과정에 포함시키는 것은 매우 시급한 일이다. 공립교육에서 정보

능력에 관한 교육을 등한시하는 사이에 사적인 교육기관에서 이를 담당하게 된다. 사적인 기관에서 정보능력을 교육받는 계층은 부유한 계층일 가능성이 높으며 이를 감당할 경제적인 능력이 없는 가난한 사람들은 정보능력에 관한 교육을 받을 기회가 없게 된다. 정보사회의 초기에 정보능력에서 뒤처지게 되는 사람들은 점차 고도화되는 정보능력에 있어서 뒤처지게 되어 정보능력의 초기습득자와의 간격은 더욱 벌어지게 된다. 이러한 간격이 더욱 벌어지기 전에 정보능력교육을 공공교육의 교과과정에 흡수하여 모든 학생들이 정보사회에서 필수적인 정보능력을 함양할 수 있는 기회가 균등하게 주어져야 할 것이다.

C. 사이버스페이스에서의 공공의 장

정보사회에서는 인쇄매체의 역할이 줄어드는 대신 전자매체가 정보전달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역할을 담당할 것이다. 많은 사람들이 신문이나 잡지를 구독하는 대신 인터넷을 통해 전자신문과 잡지에 접속해 새로운 정보를 얻게 될 것이다. 또한 전자도서관에 접속해 원하는 책을 찾아보고, 디지털화 된 영화와 방송프로그램을 검색하여 시청할 것이다. 전자매체의 발달은 사람들의 정보습득과 이용의 행태를 여러모로 변화시킬 것으로 예상된다. 이러한 변화 중 하나는 사람들이 매우 다양한 정보원으로 정보를 습득하나, 이는 개인의 관심사에 국한되리라는 것이다. 즉 정보제공자가 일방적으로 정보를 전달하는 전통적인 매체와 달리 전자매체는 정보의 선택여부를 개인이 결정할 수 있기 때문에 자신이 관심을 가지고 있는 분야의 정보만 선택하게 된다. 따라서 정보의 양은 전체적으로 폭증하나 개인의 관심 영역과 정보의 습득 범위는 매우 좁게 될 가능성이 높다. 개인이 좁은 관심영역에 편중하여 정보를 선택하여 취하게 된다면 사회적인 공동의 관심사에 소홀해 지게 될 것이다. 정보사회의 개인은 각각의 관심의 세계에 파묻히어 자신이 원하는 정보를 얻기 위해서는 세계의 어떤 정보원이라도 접근을 시도하며, 지구상 어디에 있는 사람과도 정보를 순식간에 주고받을 수 있을 것이다. 반면에 자신이 살고 있는 곳의 많은 사회적 문제에 관해서는 무지하거나 무관심하게 될 수 있을 것이다.⁴⁾

신문과 방송과 같은 대중매체는 사회적 문제를 제기하고 여론을 형성시키는 역할을 담당해 왔다. 사회적 문제나 이슈가 개개인에게 직접적인 관계가 없다 할지라도, 직접적인 관심사항이 아니라 할지라도 언론과 방송은 대중의 관심을 유발시키고 이에 대한 의견과 입장을 가지도록 유도해 왔다. 이러한 역할은 공공의 문제를 제기하고 문제에 대한 여론을 형성하며 문제 해결에 대한 공공의 선택을 유도하는 민주정치의 기초가 되어 왔다. 그러나 전자매체가 개인에게 정보의 취사선택을 맡겨 버림에 따라 이러한 공론의 장은 점차 축소되고 있다.

공공적인 문제의 제기, 여론형성, 의사결정 및 사회참여를 위해서 공론의 장을 마련하는 것

4) 이러한 정보행태는 공동대의를 위한 정신의 상실로 이어지게 된다(Fortner, 1995, p. 149).

은 정보사회에서도 필수적이다. 정보사회에서의 공론의 장은 정보통신 네트워크에서 마련될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공론의 사이트는 고대의 직접민주주의의 장이었던 광장이나 근대민주주의에서 공론형성의 장에 되었던 신문과 방송과 같은 역할을 해야 할 것이다. 사이버 스페이스에서의 공공사이트가 이러한 역할을 할 수 있기 위해서는 모든 사람들의 접근이 필수적이다. 따라서 공공사이트는 무료로 접속되어야 할 뿐 아니라 모든 사람들의 접근을 유도할 수 있는 장치가 마련되어야 한다. 공공사이트에서의 접속을 유도하는 방법은 자발적인 참여를 권장하는 방식으로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또한 다양한 계층의 모든 사람들이 참여할 수 있고 다양한 의견을 자유로이 표현할 수 있도록 법적, 제도적 장치가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공공사이트는 공지사항이나 긴요한 생활 정보를 효율적으로 정리, 가공하여 무료로 배포해야 한다. 법률제정안, 공표된 법률, 법률 및 제도의 변경, 사회보장제도의 안내, 공공서비스의 안내, 공공단체의 안내, 선거직 인사에 관한 사항, 중앙 및 행정부, 의회 등의 활동에 관한 사항 등이 이에 포함될 것이다. 이 밖에도 광고, 구직, 구인안내, 생활정보 등이 이용하기에 편리하게 정리되어 있어 정보에 관한 접근이 쉽게 이루어 질 수 있어야 할 것이다. 공공사이트의 정보는 각 지역의 공공도서관에서 수집하여 정리하여 올릴 수 있을 것이다. 공공사이트는 통신기술과 컴퓨터 기술이 발달함에 따라 여러 방법으로 접근될 수 있을 것이다. 통신네트워크에 연결된 PC, 전화, TV 등을 통해서 공공사이트에의 접속이 용이하고 신속하게 이루어 질 수 있어야 할 것이다. 혹은 공중전화와 같이 공공사이트에 접근할 수 있는 공공 단말기가 공간적으로 접근이 용이하도록 곳곳에 설치되어 있어 누구나 공공사이트에 접속하여 필요한 정보를 구하거나 의견을 표출하는 것이 가능해야 할 것이다.

IV. 결 론

정보사회에서 더욱 침해될 것으로 예상되는 정보격차를 해소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정보의 공적 영역과 수단을 확보하는 것이다. 정보사회에서 정보가 점차 상업적인 거래의 대상이 됨에 따라 정보의 공적영역은 점차 축소되며 정보수단의 사유화로 인해 정보에의 접근이 개인적인 역량에 의해 이루어지게 된다. 이러한 경향은 사람들이 일상생활을 위해, 직업적 성취를 위해, 혹은 순수한 자아발전과 교양함양을 위해 필요로 하는 정보를 얻는 비용이 증가함을 의미한다. 정보이용에 대한 비용증가로 인하여 정보습득과 이용은 경제적 능력에 따라 차별적으로 이루어지게 되어 정보를 가진 자와 가지지 못한 자로 구분시키게 된다. 이러

한 차이는 정보사회가 진행됨에 따라 정보를 효율적으로 이용하는 능력의 차이로 이어지며 이러한 차이는 누적적으로 확대될 것으로 예상된다. 정부의 정보정책은 정보의 상업화와 사유화에 대처해 정보의 공공영역을 확보하며 정보격차를 완화시키기 위해 공공적 지원을 강화하는 것이 되어야 할 것이다.

정보사회에 대한 청사진은 상업적인 기업의 주도하에 제시되고 있고 정부의 정책도 초고속 통신망과 같은 정보인프라의 구축과 정보산업의 발전을 지원하는데 치중되고 있다. 그러나 정부의 정책은 정보의 공공적 영역을 축소를 최소화하며 특히 사기업의 정보분야에서의 영역이 무한히 확대되는 것을 견제하는 것에 관심과 관여의 폭을 넓혀 나가야 할 것이다. 왜냐하면 정보사회에 있어서 정보는 그 가치가 개인의 생존과 생활에 매우 중요한 것이므로 정보에 관한 모든 영역이 전적으로 시장경제에 맡겨져서는 안될 것이기 때문이다.

정보의 공적인 영역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현재의 공공도서관과 제도를 확충하고 재정비하여 이들이 정보사회에서도 정보제공의 공적 역할을 담당하도록 해야 한다. 공립학교, 공공도서관, 공공방송 등이 상업적 이익을 추구하는 시장의 메카니즘이 다루지 못하는 공공의 관심사와 공공의 이익, 그리고 공공의 복지를 도모하도록 이들에 대한 정책적 지원을 강화 시켜나가야 할 것이다.

산업혁명을 통해 물질적 부를 증대시켰듯이 정보혁명은 정보와 지식을 무한히 증대시키고 이를 전파함에 있어서도 시간과 공간적 제약을 사라지게 했다. 정보기술과 통신의 혁명은 물질적 풍요를 넘어서 지적 풍요를 가져다 주었다. 정보사회에서 앞서 간 사람은 정보를 얻는데 있어서 유래 없는 자유를 누리게 된 반면 정보사회의 낙오자는 자신이 접근할 수 없는 영역의 많은 활동과 정보로부터 소외된다. 또한 정보기술의 변화는 매우 빠른 속도로 일어나서 정보사회에서 뒤쳐진 사람들이 이를 따라 잡기는 거의 불가능하게 된다. 이들은 지식과 정보, 오락, 문화, 토론, 사회참여에서 제외될 뿐만 아니라 새로이 생성되는 직업과 사업의 기회도 박탈당하게 된다.

정보와 통신기술이 가져다주는 정보사회의 혜택이 커질수록 정보부자와 정보빈자의 간격이 넓어 질 것이며 그 간격은 누적적으로 확대될 것이다. 이러한 간격이 아직 작을 때 정보와 정보능력의 중요성을 인식하여 사회 구성원 모두가 공평하고 정당한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사회정책을 세우는 일이 무엇보다도 시급한 일이다.

참 고 문 헌

- 강미은. "정보시대의 빈부 격차", 한겨레 21. 제 270호, 1999.8.12. p.79.
- 강상현. 『뉴미디어 패러독스 - 정보통신 혁명과 한국사회』. 서울: 한나래, 1996.
- 게이츠, 빌. 『빌게이츠의 미래로 가는 길』. 이규행 감역. 서울: 도서출판 삼성, 1996.
- 전석호. 『정보사회론 : 커뮤니케이션 혁명과 뉴미디어』. 서울: 나남, 1993.
- 윌러, 허버트. 『문화(주) : 공공의사표현의 사유화』. 양기석 역. 서울: 나남, 1995.
- Firestone, C.M. & Schement, J.R. (Ed.). *Toward an Information Bill of Rights & Responsibility*, Washington, D.C., The Aspen Institute, 1995.
- Fortner, Robert S. "Excommunication in the Information Society," *Critical Studies in Mass Communication*, 12. 1995.
- Katzman, Natan, "The Impact of Communication Technology : Some Theoretical Premises and Their Implications," *Ekistics* 225, 1974, pp. 125-130.
- Rogers, Everett M. *Diffusion of Innovations*, 3rd ed., New York, Free Press, 1983.
- Schiller, H.I. *Who Knows : Information in the Age of the Fortune 500*, Norwood, N.J., Ablex Publishing Co., 1981.